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녹나무과

학명: *Machilus thunbergii*
Sieb. et Zucc.

영명: Machilus

한명: 厚朴

일명: たぶのき

후박나무는 비릿한 해풍이 불어 오는 바닷가에서만 자란다. 남·서해안 지방에서는 이 나무의 웅장한 수림대가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고기를 모으는 어부림 역할을 한다하여 마을을 지키는 나무, 동네나무로 아끼며 가꾸웠고 아끼고 있다. 키와 폭이 20m 정도로 퍼지는 수종으로 방풍림역할도 하고 그 늠름한 수자(樹姿)가 바닷물에 비쳐 고기를 불러 모은다고 한다. 남해안의 갯마을이나 섬마을에서는 흔히 군락(숲)을 이루고 있지만 경남 남

해군 삼동면 물건리 마을의 어부림은 특히 유명하다. 이 마을에서는 후박나무 숲이 해안가를 에워싸 대대로 태풍의 피해를 별로 받지않고 고기를 많이 잡았으나 한때 땃감이 귀해지자 이 나무를 베면 재앙이 닥쳐온다는 전설을 깨고 너도나도 베어쓴 결과 해일의 피해를 자주 입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한때 마을은 황폐화해지기까지 했었다. 뒤늦게 후회한 마을주민들은 다시 후박나무를 심어 태풍과 홍어의 재앙을 막는 어부림을 조성해 지금은 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인심이 좋고 이웃간 정이 통하던 시절만해도 이 나무는 마을마다 수십그루씩 무리지어 마을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이 나무 껍질이 위장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비싸게 팔리면서부터 각 마을에서는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을 팔아버려 지금은 희귀식물이 되고 말았다. 울릉도의 저동에 당산목이나, 죽도의 어부림의 경우 현재까지는 잘 보존되고 있으나 보호하지

후박나무



▲후박나무 전경

않으면 파괴될 염려가 큰 수종이다.

1. 생태적 특성

전남북, 경남북, 울릉도, 제주도 및 남부 도서지방의 표고 700m 이하에서 자라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수고 20m, 직경 1m까지 자란다. 중국, 일본에도 분포하나 세계적으로 흔치않은

수종으로서 내한성은 약하지만 내조성이 강하여 해안의 비옥 적윤지에 많이 자라고 생장이 빠르며 맹아력이 강하고 공해에도 잘 견딘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우상의 맥이 있고 혁질로서 두꺼우며 타원형으로 길이 7~15cm, 넓이 3~7cm이고 표면은 광택이 있다. 봄에 나는 새순은 단풍과 같이 붉게 물들어 아름답고 5~6월에 새잎과 함께 원추화서가 잎 겨드랑이에서 등황색인 양성화가 많이 핀다. 열매는 다음해 7월에 흑자색으로 익으며 둥글고 지름 1.4cm로 콩과 같은 장과가 달린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잎이 니스칠을 한 듯 광택이 나고 봄에 새로 돌아오는 새순은 가을의 단풍과 같이 붉게 물들어 불꽃을 자랑한다. 원정형의 수형을 이루어 해변가의 방풍림역할도 능히 할 수 있으

며 늠름한 수자를 감상할 수 있다. 추위에는 약하지만 동백나무보다는 강해서 인천근해까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해안 매립지의 조경용으로 식재할 만하다. 식재시에는 반드시 큰나무 그늘 아래에 심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상층수목을 정지해 주어야 한다.

4. 번식법

7~8월에는 열매는 흑자색으로 익어 떨어지는데 낙과후 2주일이면 벌써 발아할 정도로 단기형이므로 채종즉시 직파하는 것이 좋다.

종자는 건조를 매우 싫어하며 여름의 직사광선에 3주일만 버려두면 거의 발아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를 싫어한다.

과종상은 부식질이 많고 보수력이 있는 묘상에 흠어뿌림을 한다. 8월중 싹튼 묘목은 년내에 15cm로 자라며 11월 초순경에는 겨울눈이 생기며 신장생장이 중지된다.

종자를 저장할 때에는 채종

후 곧 물에 과육을 씻어버리고 반나절정도 그늘에서 말려 물기를 거둔후 비닐봉지에 넣어 5~10℃에 저장하면 발아를 억제할 수 있다.

육묘관리는 1회 이식을 한다 음에 봄 3월경 동아가 트기전에 퇴비를 충분히 넣은 습기가 있는 묘상에 이랑너비 30cm, 포기사이 20cm로 넓혀 심는다. 이때 뿌리를 잘라주면 세근 발달이 잘되어 다음 이식시 활착율이 높다. 제자리에 식재한 후 4~5년이 경과하면 신장생장이 매우 빨라진다.

5. 그 밖의 용도

수피는 향기가 좋고 후박피(厚朴皮)라 하여 위장병 치료에 사용되는 귀한 나무이다. 간혹 후박나무라고 부르면서 전혀 다른 수종인 일본목련(Magnolia obovata)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목련은 목련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꽃이 크고 백색이며 향기로운 화목류이며 조경수로 사용하는 나무이다.

후박나무는 관상수뿐만 아니라 생장이 빠른 속성수로서 용재가 우수하여 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합판재, 펄프용재 등 산업용수로서의 실용가치도 높으므로 묘목생산은 관상수와 약용수, 조림수종으로도 수요가 기대되므로 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다.



▲후박나무 열매